

18세기 용산강(龍山江) 일대의 유상지(遊賞地)와 시회(詩會)

이새롬

한국학대학원 박사 수료, 한국학문학 전공

sae410@daum.net

- I. 머리말
 - II. 용산강(龍山江)의 지리적 특징과 승경지(勝景地)
 - III. 용산강(龍山江) 일대에서의 시회(詩會)와 교유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한강의 공간 구획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한강은 삼강(三江)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남산 남쪽일대에서 노량까지를 한강(漢江), 노량 서쪽에서 마포까지를 용산강(龍山江), 마포 서쪽에서 양화 나루까지를 서강(西江)으로 구분하였다.¹ 조선시대 한강은 주로 수로로 사용하였으나 동시에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후기에는 도성 근교에서 별서(別墅) 및 원림(園林)을 조성하여 한적함을 즐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강 유역에도 조선후기 많은 문인들은 별서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별도의 공간이 생기면 문인들은 수양의 공간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가까운 벗들을 초청하며 연회를 베풀고 시를 수창하여 시회(詩會)를 열었다. 조선후기에는 시회(詩會) 및 시사(詩社)가 다양했는데, 교류하는 문인들과 함께 유상지(遊賞地)를 찾아다니며 시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므로 한강의 명소들과 시회는 긴밀한 관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한강 유역에서 열린 시회에 주목하여 문인들의 교류 공간으로 존재했던 한강 유역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왕실 누정이 많았던 서강(西江)이나 압구정(狎鷗亭)이라는 이미 유명한 장소가 있는 한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 조선 후기 문인들이 시회를 자주 열었던 별서 및 원림과 같은 승경지(勝景地)가 많았던 용산강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서울의 경관 명소와 그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을 살핀 연구는 문학, 지리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² 그 중 한강 주변

1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권(2006), 28쪽.

2 허경진,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향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연구』 13권

경관에 주목한 연구도 꾸준히 성과를 축적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편찬한 『서울의 누정』³에서는 서울 내의 궁궐, 한강 유역, 산, 개인적인 공간 등에 조성된 누정들을 소개하였다. 이종목⁴은 정선의 화첩 속 한강의 풍경과 별서를 소개하였으며,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에서는 한강 지역을 남호(南湖), 동호(東湖), 서호(西湖)로 구분하여 조선시대 문인들의 별서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중 남호(南湖)편에서는 용산강 일대의 별서 조성 과정과 문인들이 별서에서 창작한 시문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경강-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⁵에서는 한강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특히 6장에서는 한강 명소를 소재로 한 그림과 시 작품을 통해 조선시대 문인들의 풍류 의식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용산강 일대의 승경지와 이를 소재로 한 문인들의 작품을 다소 소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18세기 문인들의 시회에 중점을 두어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작품을 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김세호⁶는 서강(西江)에 자리 잡았던 권상신의 현호별서에 주목하였는데, 한강유역에 조성된 특정 문인의 별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1999): 조규희, 「17·18세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文會圖」, 『서울학연구』 16권 (2001): 권경록, 「18세기 '三角山'의 문화지형과 공간의 재발견」, 『민족문화논총』 47권(2011): 윤진영, 「조선 후기 西村의 명소와 진경산수화의 재조명」, 『서울학연구』 50권(2013): 이태호, 「새로 공개된 겸재(謙齋) 정선(鄭敼)의 1742년작 <련강임술첩(漣江壬戌帖)>: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의 조선적 형상화」, 『동양미술사학』 2권(2013): 박수지·김한배·이승희, 「조선시대 서울 경관 명소 분포와 인식의 비교 연구: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82권(2014).

- 3 서울특별시, 『서울의 누정』(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 4 이종목, 「정선(鄭鐔)의 그림 속에 살던 사람들: <광진(廣津)>, <압구정(鴨鵝亭)>, <동작진(銅雀津)>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32권(2015); 이종목,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남호편』(경인문화사, 2016).
- 5 고동환·이현군·유승희·김태우·이종목·윤진영, 『경강-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서울역사박물관, 2017).
- 6 김세호, 「權常愼의 玄湖別墅와 漢江에서의 文化活動」, 『한국한문학연구』 69권(2018).

이처럼 대부분 연구 성과가 한강 유역에 조성된 별서(別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서 외에 용산강에 조성된 다양한 유상 공간을 밝히는 것도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조선후기 도시 내 명승지(名勝地)와 시회(詩會)를 연결시킨 연구도 있다. 심경호⁷는 18-19세기 도성과 그 주변에서 형성된 시회를 소개하고, 시회가 일어난 공간의 의미를 밝혔다. 김묘정⁸은 소북 문인 집단의 시회와 별서와의 관계를 살펴, 지식 교류의 장소성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별서뿐만 아니라 용산강 주위의 다양한 공간과 그곳에서 열린 시회의 특징을 고찰하여 용산강 일대의 교유 공간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후기 문인들의 문예 의식을 교유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던 시회(詩會)와 지리적 공간을 연결시켜 조선후기 문화 공유 공간이 지닌 의의를 도출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II. 용산강(龍山江)의 지리적 특징과 승경지(勝景地)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에 따르면 “경성 남쪽에 이르러 한강 나무가 된다. 여기서 서쪽으로 흘러서는 노랑이 되고 용산강이 된다.”고 하였다. 용산강은 현재 지리상 용산 및 신용산 일대와 동작구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을 말한다. 다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포대교 서쪽부터 마포대교 일부까

7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31권(1998); 심경호, 「조선후기 서울의 遊賞空間과 詩文學」, 『韓國漢詩研究』 8권(2000).

8 김묘정, 「소북(小北) 문인집단의 지식 공간 양상과 그 의미: 별서(別墅) 시회(詩會)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6권(2019).

지를 이른다. 조선시대 용산강의 별칭으로는 용호(龍湖), 남호(南湖) 등이 있다.

온갖 배들이 드나들던 노량진(鷺梁津)이 용산강에 맞닿아 있었기에 용산강은 수로의 중심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용산강은 도성 서남 쪽 10리 되는 곳에 있는데, 곧 고양(高陽)의 부원현(富源縣) 땅이었다. 경상·강원·충청·경기도 상류(上流) 지방의 세곡(稅穀) 수송선이 모두 여기에 모인다.”라고 하였다.

한장석의 시 〈공해문(控海門)〉에서는 ‘상선들 용산과 마포 시장에 모여 있고, 조운선 영호남 깃발 펴력이네’라고 한 구절이 있어, 각지에서 상선과 조운선들이 용산강으로 모여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운선의 정박지였기 때문에 용산강 나루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창고인 군자금(軍資監) 강감(江監)이 있었다. 직책을 맡은 문인들은 바쁜 공무에 힘겨워하는 한편, 때론 시간을 내어 용산강 일대를 유람하며 그 경치에 감탄하곤 하였다.

용산강에서는 기우제도 지냈다. 기우제는 12차례에 걸쳐 행하는데, 2번째와 7번째는 용산강과 저자도(楮子島)에서 행해졌다. 숙종조 1704년 6월에 용산강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으며¹⁰, 1794년 7월 14일에 정조는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2차 기우제를 지내면서¹¹ 제문을 남겼다.¹²

고려 말 문인이었던 이승인(李崇仁)은 〈추흥정기(秋興亭記)〉에서 “용산(龍山)은 평소에 강과 산의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칭해졌으며, 토지도 비옥해 오곡이 모두 잘되었다. 게다가 수로로는 배가 운반되고 육로로는 수레가 다녀서 밤과 낮을 두 번만 지나면 도성에 도착하기 때문에 높은 이들이

9 한장석, 『眉山集』 권1(한국문집총간본 322), 〈控海門〉. “商舶叢叢山浦市, 漕船獵獵嶺湖旗.”

10 『국조보감』 권52, 숙종조 12 30년(갑신, 1704) 기사.

11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4일 기사.

12 정조, 『弘齋全書』 권9(한국문집총간본 262), 〈再祈雨祭文〉.

이곳에 별업(別業)을 많이 경영하곤 하였다.”¹³라고 하였다. 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용산강 일대가 화려한 공간이었으며, 접근성이 좋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용산강 일대의 인식은 이어져 조선 초기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용산강은 문인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 되었다.

정약용은 용산강의 풍광을 즐긴 대표적인 문인이다. 그는 용산에서 머물면서 <여름 용산에서 지은 잡시(夏日龍山雜詩)> 5수를 지었는데, 각 수마다 상선이 지나가는 모습, 동작진, 노량진, 밤섬, 읍청루의 풍경을 읊었다.¹⁴

용산강과 용산 일대를 대표할 만한 경관으로 읍청루(挾淸樓)가 있다. 읍청루는 본래 용산 별영에 딸린 누대였다. 읍청루에 올라서면 용산 일대와 마포는 물론 저 멀리 한강 하류까지 바라볼 수 있었기에 많은 문인들이 찾는 명소였다. 게다가 ‘제일강산(第一江山)’이라는 편액¹⁵이 걸려 있었으므로, 그 풍류가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 때문에 시기와 문단, 교유 집단에 관계없이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교유하였다는 점도 읍청루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이다.

<조선(漕船)을 검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읍청루에 올라 읊은 것을 정랑(正郎) 정혁선에게 보이다>

抽身簿領亂叢間 어지럽던 바쁜 공무에서 벗어나
落日微風緩棹還 저녁 미풍 속 느릿하게 노 저어 돌아오네
十里淸江樓百尺 십리 맑은 강가 높다란 누대에 올라보니
始知人世有寬閒 세상에도 한가함 있는 줄 이제야 알았다네¹⁶

13 이승인, 『陶隱集』 권4(한국문집총간본 6), <秋興亭記>. “龍山素稱有湖山之樂, 土且肥衍宜五穀. 水運舟陸行車, 再宵晝達京都, 貴人故多治別業焉.”

14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 <夏日龍山雜詩>.

15 『임하필기』에 따르면 조선 후기 문신인 조윤형(曹允亨)의 글씨라고 한다. 이유원, 『林下筆記』 34, <第一江山字辯>.

16 송상기, 『玉吾齋集』 권4 (한국문집총간본 171), <檢漕船歸路, 暫登挾淸樓口號, 示鄭正>

1716년에 송상기가 지은 시이다. 조운 선박을 검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를 이용하여 읍청루에 오른 후의 감상을 남겼다. 송상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읍청루에 오르니 한흥(閑興)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하곤(李夏坤), 윤순(尹淳) 등과 교유했던 18세기 문인 조태억(趙泰億)도 조운선을 검사한 뒤 읍청루에 오른 뒤 시를 썼다.¹⁷ 이처럼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읍청루는 공무로 바쁜 일상 속에서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시의 두 번째 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인들은 주로 배를 이용하여 읍청루에 찾아갔고, 자연스럽게 뱃놀이도 함께 즐겼다.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수명루(水明樓)도 있다. 수명정은 청송(靑松) 심씨(沈氏) 일가가 소유했다고 알려졌다. 심유(沈攸)는 별서를 조성하고 남용익(南龍翼), 홍만용(洪萬容), 이지걸(李志傑) 등과 교유하였다.¹⁸ 이후 심유의 아들 심한주(沈漢柱)가 수명루를 물려받았다. 심한주도 당대 문인들과 수명루에서 시회를 열었는데, 심한주와 수명루에서 교유한 문인으로는 김진규(金鎭圭), 김춘택(金春澤), 이병성(李秉成) 등이 있다.¹⁹

용산강의 또 다른 명소로는 18세기 청남(淸南) 계열 문인인 채제공(蔡濟恭)의 시안정을 언급할 수 있다. 시안정은 채제공이 1792년 즈음에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용산강에 정자를 마련한 일에 대해 채제공은 “개인적인

郎[赫先]).

- 17 조태억, 『謙齋集』 18 (한국문집총간본 189), 〈西江檢漕後, 仍上挹淸樓. 與吳四宰保卿·李侍郎仲協, 聯句〉.
- 18 남용익의 시 〈自鷺梁順流, 訪灘翁水明樓. 伯涵·文仲·漢卿皆已來會〉와 〈自鷺浦, 仍訪龍山沈仲美叔水明樓. 洪伯涵·任文仲·宋漢卿[昌]三友, 皆先來待〉, 〈水明樓醉, 次伯涵韻〉(남용익, 『壺谷集』(한국문집총간본 131))와 이지걸의 시 〈與萬初訪梧灘沈仲美[攸]水明樓. 醉中酬唱[四首]〉, 〈水明樓酬唱〉, 〈還家後, 與李文叔[昌齡]諸友訪水明樓〉(이지걸, 『琴湖遺稿』(한국문집총간본 속40)) 등을 통해 수명루에서 이루어진 시회를 확인할 수 있다.
- 19 예컨대, 김진규의 시 〈冬夜水明樓小集〉, 〈龍山與沈一卿泛舟, 仍登水明樓〉(김진규, 『竹泉集』(한국문집총간본 174)), 이병성의 시 〈仲秋月夜, 莘老來宿齋舍. 號韻同賦〉(이병성, 『順菴集』(한국문집총간본 속59))와 같은 작품들이 수명루 시회에서 쓴 것이다.

도리로 인해 벼슬을 내놓았다”고 설명하였다.²⁰ 그러나 채제공은 시안정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입성(入城)해야 했다.²¹ 시안정에서 채제공이 머물렀던 기간이 짧았기에 이곳에서 다른 문인들과 교류했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용산강에서 배다리를 거쳐 용산 안쪽으로 들어가면 청파(靑坡)가 나오는데, 한때 채제공이 이곳에 살았다. 채제공뿐만 아니라 청파 일대는 사천 목씨(泗川 睦氏)의 세거지(世居地)로, 채제공과 교류했던 목만중(睦萬中)도 이곳에 거주하며 시회를 열었다.²² 거리상 가까웠기 때문인지 당시 근기남인들은 용산강 근처 환월정(喚月亭)과 마포나루 근처에 만어정(晩漁亭)에서 모임을 가졌다.

읍청루와 시안정 인근에는 심원정(心遠亭)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강화회담을 벌였던 장소인데 현재는 정자는 없고 심원정 터를 알리는 비석만 남아있다.²³ 심원정은 19세기 문인인 남공철²⁴과 조두순(趙斗淳)의 별서가 되었다.²⁵ 남공철은 이곳에서 이시원(李是遠), 정원용(鄭元容), 박영원(朴永元) 등과 교류하였다.²⁶

-
- 20 채제공, 『樊巖集』 권2(한국문집총간본 235), 〈聖候欠寧, 藥院請入診, 批旨若曰, 須與領府事同入. 不然, 不可以召接. 院報踵相接到此, 不違他顧, 蒼黃騎馬以出, 時夜已二更矣〉의 주: 時引義退出龍湖之是岸亭.
- 21 채제공, 『樊巖集』 권2(한국문집총간본 235), 〈臣之自龍湖入城, 以上候欠寧, 至有非領府事同入, 不許藥院入診之教故也. 及承候登筵, 教曰, 領府仍留則予病當瘳, 若出去則雖瘳之, 後必當復作, 以此知之. 臣惶蹙不敢對. 仍值五月, 聖孝逐歲采篤, 齋居十日, 又安敢言私義乎. 過齋之翌, 又蒙賜對, 畧陳去就之義, 遂復出是岸亭. 戀結之懷, 時或發之篇什, 蓋水調餘音也.〉.
- 22 심경호(1998), 앞의 책, 126쪽.
- 23 서울특별시(2012), 앞의 책, 313쪽.
- 24 남공철, 『金陵集』 권1(한국문집총간본 272), 〈九日, 憶心遠亭〉.
- 25 조두순, 『心庵遺稿』 권8(한국문집총간본 307), 〈龍湖心遠亭吾家也, 得之於六十年之後, 經春徂夏, 劣有繕寫, 而拘於官. 不克一宿, 口占寫懷.〉.
- 26 예컨대, 박영원의 문집 『梧墅集』(한국문집총간본 302)에 수록된 시 〈與大始·希眞·洛重, 聯騎出龍湖心遠亭, 大始方借寓也. 沿流挹清樓下, 舟中各賦二絕, 又從以步和. 人各得八首〉를 통해 여러 문인들과 심원정에서 읍청루까지 선유(船遊)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읍청루가 있는 용산에서 용산강을 건너면 동작진과 노량진이 있다. 이곳에는 정조가 1791년에 세운 용양봉저정(龍驤鳳嶺亭)이 있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오갈 때 임시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곳이다. 그 서쪽에는 월파정(月波亭)이 있었는데 현재 노량진 일대에 해당한다.²⁷ 17세기 후반에 이민서가 거주하였는데²⁸, 이 시기엔 용산 수명루(水明樓)에 거주하였던 심유가 자주 이곳을 찾았다.²⁹ 18세기 후반에는 정약용이 이기경을 비롯한 여러 벗들과 변려문을 공부하다가 용산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밤에 월파정에 도착하여 흥취를 즐기곤 이 일을 기문으로 남겼다.³⁰

이 밖에도 용산강 일대에 조성된 유명한 별서로는 일벽정(一碧亭), 오강루(五江樓), 삼호정(三好亭) 등이 있다.³¹ 이처럼 조선 후기 문인들은 용산강 일대에 많은 별서를 조성하며 그 풍류를 즐겼다. 17세기 문인인 이민구(李敏求)는 마포 일대에 수명정(水明亭)을 조성하고 기문을 남기면서 “그러므로 성시(城市)에서 살면서 낮고 비좁은 것을 싫어하고 한적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정자를 지었으니, 동우(棟宇)가 닿고 서까래 끝이 이어질 듯이 겹겹이 세워지고 마주보며 솟아 있는데, 그 정자들이 모두 명성을 드날리고 있다.”³²고 하였다. 성시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27 서울특별시(2012), 앞의 책, 333쪽.

28 이민서, 『西河集』 권5(한국문집총간본 144), 〈寓居月波亭, 自仲春已過端陽, 有感謾吟〉.

29 예컨대, 〈與泛翁·泰升同舟訪張尙書[善澗], 于月波亭. 泰升時有晉陽之行, 泛翁有詩記會. 次韻以酬〉와 〈同諸友訪張尙書于月波亭, 仍成小飲, 薄暮回舟. 張叔涵[善冲] 有詩追寄, 次韻奉酬〉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심유, 『梧灘集』 권4(한국문집총간본 속34).

30 정약용, 『茶山詩文集』 권6, 〈月波亭夜遊記〉. “於是乘小舟, 泝流自龍山, 中流容與, 東瞻銅雀之渡, 西望巴陵之口, 烟波浩渺, 一碧萬頃. 至月波亭而日沒, 相與憑欄命酒, 以候月出. 少焉水烟橫抹, 微波漸明. 李君曰: “月今至矣.” 遂復登舟以候之, 但見萬丈金標, 條射水面, 轉晒之頃, 千態百狀, 盪漾流離, 其動者, 破碎如珠璣之迸地, 其靜者, 平滑如玻瓈之布光. 捉月戲水, 相顧樂甚.”

31 해당 별서들의 조성과정 및 문인들이 남긴 시문은 이종목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종목(2016), 앞의 책.

32 이민구, 『東州集』 권3 (한국문집총간본 94), 〈水明亭記〉. “故處城市厭湫隘而樂間曠者,

공간으로 한강의 별서나 원림은 당시 문인들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용산강에는 많은 문인들이 별서를 조성하거나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겼다. 용산강은 북쪽으론 남산과 가까웠으며, 강 건너 남쪽으로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조망할 수 있었기에 산과 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배를 이용한다면 동호(東湖)나 서호(西湖)뿐만 아니라 수원까지 맞닿을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이 높았기 때문에 문인들은 쉽게 용산강을 유람의 장소로 선택할 수 있었다. 언급하다시피 용산강은 배와 수레가 모두 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들은 문인들이 용산강을 유상지로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터였다.

앞서 소개한 용산강 일대 승경지(勝境地) 중에서 18세기 문인들이 교유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장소들을 중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룰 대표적인 장소는 읍청루(挹淸樓), 이씨(李氏) 원림 일대와 환월정(喚月亭)이다. 해당 공간은 18세기 각 노론과 남인을 대표할 만한 집단들이 자주 유람했던 곳으로, 읍청루(挹淸樓)는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³³인 오원(吳瑗), 이천보(李天輔), 남유용(南有容), 황경원(黃景源)이 자주 유람했으며, 이씨(李氏) 원림과 환월정(喚月亭) 일대는 체제공과 목만중을 중심으로 모인 근기(近畿) 남인(南人) 문인들의 시회 공간이었다. 해당 공간의 특징과 작품을 통해 용산광의 풍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咸就以爲亭，接棟宇連櫺題 疊起而對峙，俱擅有名。”(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참고하였다.)

33 영조조(英祖朝)에 활동한 노론계 문인인 오원, 남유용, 이천보, 황경원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그 중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라는 명칭은 임유경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한 뒤로 통칭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임유경, 『英祖朝 四家の 文學論 연구: 李天輔·吳瑗·南有容·黃景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1).

시적 지향점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용산강(龍山江) 일대의 시회(詩會)와 교유

1. 읍청루(挹淸樓)와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

읍청루를 시회 장소로 활용한 대표적인 집단으로 영조조 노론 사가(四家)로 일컬어지는 황경원 남유용, 이천보, 오원이 있다. 네 문인은 주로 오원이 서울의 종암동에 별서로 마련한 동정(東亭)에서 주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1737년에 종암(鍾巖) 별서에서 연작시를 쓰며 별도로 『종암수창집(鍾巖酬唱集)』을 엮었기에 이들을 종암문회(鍾巖文會)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을 이규상은 『병세재언록(并世才彥錄)』에서 동촌파(東村派)라고 칭하기도 하였다.³⁴

남유용은 1731년에 용산강 일대의 군자감에서 숙직하였는데, 오원은 이천보와 황경원을 이끌고 남유용을 찾아가 모임을 가진 뒤, 읍청루에도 들렀다. 이때 쓴 시에서 오원은 “저갓거리 비집고 가니 상인들 시골벽적한데, 창주(滄洲)의 흥취 마음으로 알겠구나”라고 하였다.³⁵ 이를 통해 오원이 성시(城市)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읍청루의 매력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1738년에도 남유용이 군자감 주부가 되었기에 오원과 이천보, 황경원은

34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창작과비평사, 1997), 51쪽.

35 오원, 『月谷集』 권3(한국문집총간본 218), 〈德哉陪其尊公軍資直舍, 見邀爲小集. 余兄弟同宜叔·大卿赴約, 金孺文[純澤]·南甥元直[公弼]·南生漢綸·俞生盛基亦在, 醉後登挹淸樓呼韻〉. “村市側肩商子晷, 滄洲遐興祗心知.”

남유용을 찾아간 뒤 읍청루에서 풍류를 즐겼다.³⁶ 네 문인에게 교유 공간으로서 읍청루가 중요했음은 황경원이 이천보의 문집 서문에 남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공을 따라 배를 타고 용산에 이르니 오백옥 공과 남덕재 공이 배에 함께 있는지라, 드디어 손을 잡고 읍청루에 올랐다. 공이 슬픈 기색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백옥은 자네보다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먼저 노쇠해질 터, 나와 덕재의 나이는 백옥보다 많으니 더 먼저 노쇠해질 터라, 언제 나라가 태평성대 해짐을 볼 수 있겠나?”

덕재는 한숨을 쉬고 백옥은 몇 줄기 눈물을 흘렸고, 나는 속으로 공이 세상에 뜻을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단지 그의 문장만 칭송하고 그가 세상을 걱정하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알지 못한다. (...) 공은 늙어서 강가에 정자를 짓고 살았고, 나 역시 병이 걸려 강가로 돌아왔는데 공의 정자와의 거리가 채 10리도 되지 않았다. 어느 저녁에 배 그림자가 강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공의 배였다. 공이 나를 불러 배에 태우고는 용산 쪽을 가리키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우리 네 사람이 이 강에서 유람했던 때가 12운(閏)이 되었네. 백옥(伯玉)은 이미 죽었고, 나와 덕재(德哉)는 나이가 더 많아 곧 죽을 터이지만 그대가 다른 날에 반드시 나의 근심을 알아주겠지.”³⁷

36 예컨대, 남유용의 문집 『雷淵集』 권3(한국문집총간본 217)에 수록된 〈江上直舍, 謝伯玉中秋前夜對月見懷作〉, 〈宜叔自海莊過余龍山直廬宿, 共和前韻奉伯玉足下〉 등의 작품이 있다.

37 황경원, 『江漢集』(한국문집총간본 224), 〈晉菴集序〉. “初黃景源從公浮江至龍山, 吳公伯玉·南公德哉, 同在舟中, 遂握手登挹清樓. 公慨然顧謂景源曰: “伯玉齒長於子, 宜先衰, 吾與德哉, 齒又長於伯玉, 愈宜先衰, 安能見國家太平乎?” 德哉噓噓, 伯玉泣下數行, 景源竊悲公之志眷眷於世而不能忘也. 然世人徒稱其文, 而不知其有憂世之志也. (...) 公既老, 治亭江上以居之, 景源亦病歸江上, 去公之亭不十里. 一夕檣影過中流, 卽公舟也. 公呼景源升其舟, 因指龍山而歎曰: “吾四人浮此江者十二閏矣. 伯玉已卒, 吾與德哉年益老, 朝夕且死, 子他日必

이는 이천보의 문장이 뛰어났음을 평가하면서, 세상을 근심하는 위정자(爲政者)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순히 시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었을 만큼 이들의 교유 관계는 친밀했다. 마지막에 이천보가 나의 뜻을 알아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들이 서로 지음(知音) 관계였기에 가능한 기대였다. 이처럼 긴밀한 교유가 가능하게 한 읍청루는 네 문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보가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읍청루의 모임을 언급할 정도로 읍청루는 이들에겐 인상 깊은 추억을 선사한 장소였다. 이천보는 읍청루를 소재로 3편의 연작시를 지으며, 읍청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³⁸

또한 황경원은 오원의 제문에서 그와 함께 시회를 꾸리고 유람을 다녔던 추억들을 묘사하였다. 동정(東亭)에서의 시회, 단양(丹陽), 여주(驪州) 등의 유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용산강 일대에서 선유(船遊)를 즐겼던 추억도 포함되었다.

漢水湯湯	한강 넘실넘실 흐르니
四人同舟	우리 네 사람 함께 배를 탔네
自彼鷗浦	구포(鷗浦)에서부터
讌于龍洲	용주(龍洲)까지 가 잔치했네
公醉叩舷	공은 취해 뱃전 두드리며
帽浮中流	모자를 물속에 띄웠고
零露霑頂	이슬 내려 정수리 적셔도
而不知秋	가을 왔음 몰랐네

知吾憂矣。”(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참고하였다.)

38 이천보, 『晉菴集』 2(한국문집총간본 218), 〈挹淸樓〉.

或坐或卧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終夜溯游 밤새도록 오르락내리락하였지
 公時痛哭 공은 때론 통곡하며
 惟國是憂 나라만 걱정하셨네³⁹

용주(龍洲)는 용산강을 말한다. 구포(鷗浦)는 현재 수원의 하천으로 수원
 에서 광주를 거쳐 한강까지 이어진다.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한편, 이천보와 마찬가지로 우국(憂國)의 뜻을 표출했던 오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모자를 물에 띄운 채 술에 취해 편안히 유람을 즐기는
 오원의 모습은 황경원이 1738년에 오원과 읍청루에 쓴 시에서 묘사된
 오원의 모습과 무척 유사하다.

〈달 밝은 가을밤에 백옥과 함께 읍청루에 오르다〉

嘉游無定夜 좋은 놀이는 따로 정해둔 밤이 없으니
 適來遂共娛 마침 벗이 와서 함께 즐긴다네
 秋風響古木 가을바람은 고목에서 울리고
 明月照澄湖 밝은 달은 맑은 호수를 비추네
 蒼茫天際鷹 아득한 하늘가에는 기러기 날고
 浩蕩波上鳧 넘실대는 물결 위에는 물오리 떠있어
 露晞沙光曙 이슬 마르니 모래 빛 더욱 선명하고
 雲歸檣影孤 구름 돌아가니 돛대 그림자 외롭구나
 吳子喜歌詩 오원은 시를 좋아하니
 滄浪枕酒壺 강호에서 술병을 베고 누웠네

39 황경원, 『江漢集』 권22(한국문집총간본 224), 〈又祭吳太學士文〉 중 일부(번역은 고전
 번역원의 것을 참고하였다).

脫帽泛中流 모자 벗어두고 물결에 띄운 채
 飄飄安所徂 바람 따라 어느 곳으로 가는가?
 迷醉登高樓 정신없이 취해 높은 누대에 올라
 長歌又一劑 길게 읊조리고는 또 한잔 술이라
 放曠遺形骸 호탕하여 제 몸은 버려두고
 心期與俗殊 마음으로 사귀니 세속관 다르다네
 煙沉四山檣 사산(四山) 회나무마다 안개 스미고
 霜匝三洲蘆 삼각주 갈대에는 서리 내렸구나
 孰云今世士 누가 말했는가? 지금 세상의 선비 중에
 不如嵇阮徒 혜강과 완적의 무리만 한 사람 없다고⁴⁰

이 시는 일반적인 누정시처럼 읍청루 주변 경관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읊었다. 오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황경원은 “술병을 베고 누운”, “모자를 벗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제문에서 오원의 모습과 무척 유사하다. 당시 오원의 자유롭고 탈속적인 태도를 황경원은 무척 인상 깊게 여겼다. 두 문인은 많은 유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를 많이 쓰고 술에 자주 취했었다고 황경원의 제문에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모자를 벗어 던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유롭게 풍류를 즐긴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유추한다.

제문에서 유람을 즐기다 “가을 왔음 몰랐”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과 다르게 인용시에서는 누정에서 보이는 가을 강가의 한적함을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그려내었다. “기러기가 날고”, “안개가 스미고”, “갈대에 서리가 내려앉았”다고 한 구절이 그 예이다. 이처럼 회화성이 두드러지는

40 황경원, 『江漢集』 권1(한국문집총간본 224), 〈秋夜月明, 與伯玉, 登挹清樓[戊午]〉(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참고하였다).

묘사는 시적인 미(美)를 충족한다.

황경원은 제문에서 오원의 우국(憂國) 의식을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인용한 시에서는 오원의 호방한 모습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모임이 얼마나 청아한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이었던 해강(嵇康)과 완적(阮籍)을 언급하였다. 죽림칠현처럼 호방하게 청담(淸談)을 즐기는 무리가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반문하며 자신들의 모임이 죽림칠현 못지않은 청아함을 지녔다고 자부하였다.

아래는 당시 오원이 함께 지은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이다.

〈달빛 따라 배를 이끌고 읍청루에 도착하여 올라가서 함께 지었다〉

中夜坐江樓	한밤중에 강가 읍청루에 앉아있으니
樓下繫孤艇	누대 아랫 배만 하나 매여 있네
寥朗星月移	밝게 트인 하늘엔 달과 별 옮겨가고
浦滋延光炯	물가는 밝은 빛이 퍼져 가는구나
闌干落湖面	난간은 호수 표면에 거꾸러진 듯 비치고
杳如泛溟滓	아득한 혼돈 넘실넘실 떠있네
江湖終古曠	강과 호수 광활한지 오래라
邂逅朋侶並	벗을 만나 함께 만나니
高談薄雲霄	고아한 담소 하늘 닿을 듯 하고
酒盡俱酩酊	술 다 마셔버려 모두 흠뻑 취했지
沙坻粟島白	밤섬의 모래 둑 밝아오거늘
煙樹鷺洲迥	안개 낀 숲인 노주(鷺洲)는 멀구나
逸興橫菰蒲	기막힌 흥취에 부들 풀 가로지르니
風露滿衣冷	바람 이슬, 옷 가득히 설렁하게 만드네
乃知漁竿客	알겠구나, 낚싯대 잡은 객은
終身謝鍾鼎	끝끝내 종정(鍾鼎)을 사양할 것을 ⁴¹

41 오원, 『月谷集』 권5(한국문집총간본218), 〈乘月挈舟至淸樓, 登臨共賦〉.

이 시기 오원은 광주에 거처하였는데, 서울을 오가며 벗들과의 만남을 유지하였다. 시의 전반부는 읍청루의 한가롭고 고요한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자신이 타고 온 배만 홀로 걸린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달빛이 밝아 어두운 밤에도 하늘은 밝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시의 중간부에서는 시회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고아한 담론을 나누면서도 술을 곁들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읍청루에서 뜻이 맞는 벗들과 풍류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다시 날이 밝아 온다. 그렇기에 용산강에서 가까웠던 밤섬이 보일만도 하지만 아직 자욱한 아침 안개로 인해서 밤섬의 모래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제야 용산강의 가을이 눈에 들어온 듯 오원은 설렁한 기운이 옷 새로 느낀다. 풍류를 즐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가을을 느끼는 모습을 차례로 배치한 것은 황경원의 시상 전개와 무척 유사하다.

오원은 읍청루에서 느낀 흥취에 만족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사양할 것이라 말한다. 마지막 구의 종정(鍾鼎)은 식사 때 종을 울리고 술을 늘어놓고 먹는 다는 뜻이다. 곧 부귀한 생활을 의미한다. 낚싯대를 늘어뜨린 객은 용산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다 실제로 본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오원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자신을 한가롭게 낚시하는 어부에 비유하면서 부귀영화보다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객으로 남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오원은 “산수를 좋아하고 벗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또 시를 좋아한다. 시라는 것은 이유 없이 지어지지 않는다. 산에 올라가고 물가에 갔다면 짓고, 벗을 만난다면 짓고, 술이 있어서 짓는다. 그래서 많이 지을 필요도 공들일 필요도 없다.”⁴²라고 한 적이 있다. 읍청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42 오원, 『月谷集』 권9(한국문집총간본218). 〈題詩稿後〉. “吾性好山水好友朋好酒, 又好詩. 其詩無故不作. 登山臨水則作, 見朋友則作, 有酒則作. 不求多不求工也.”

경치와 함께 한 벗과 술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시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읍청루는 이들에게 애쓰지 않고 시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 된다. 이는 앞서 소개한 황경원의 <『진암집(晉菴集)』서문>이나 <오택학사에 대한 제문>에서 두 문인이 우국(憂國)의 뜻을 내보였다고 서술한 것과 달리 황경원이 읍청루에서 지은 시에서는 자신들의 모임이 속세의 때가 묻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한 것도 이와 같은 문학관이 발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네 문인들은 이후에도 종종 읍청루를 찾아갔다. 1740년에 오원이 죽은 후에도 이천보와 남유용은 종종 읍청루에서 다른 문인들과 모였다. 1745년 봄에 이천보, 남유용, 이형만(李衡萬)⁴³, 김양택(金陽澤)⁴⁴ 등이 읍청루에 배를 타고 가 시를 주고받았다. 읍청루에서는 김문행(金文行)⁴⁵이 먼저 도착하여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 함께 지은 시를 그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창작한 남유용과 이천보의 시를 각각 살필 수 있다.

<배를 띄워 읍청루에 도착하여 호부(戶部) 사빈(士彬) 김문행과 술을 싣고 만났다. 취한 다음에 <등악양루(登岳陽樓)의 운을 차운하여 이의숙, 평일(平一) 이형만, 사서(士舒) 김양택과 함께 화답하였다>

樓遲聊薄宦 느릿느릿 거닐다 쉬다 관직생활 짧은 터라
春酒酌高樓 높은 누각에 누워 봄 술이나 마신다네

43 이형만(李衡萬, 1711-?):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평일(平一)은 그의 자이다. 이성룡(李聖龍)의 아들이다.

44 김양택(金陽澤, 1712-1777): 김양택은 자가 사서(士舒)이다. 저서로는 『건암집(健庵集)』이 있다. 이천보의 문집인 『진암집』의 서문을 써주었으며 네 문인과 교유 관계가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5 김문행(金文行, 1701-1754): 사빈(士彬)은 그의 자이다. 그의 증조부는 김수증(金壽增)이다. 1753년에는 승지(承旨)가 되었고, 이후 좌승지(左承旨)와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浦日鷗鳴得 한낫의 물가엔 우는 갈매기 있고
 汀烟樹色浮 물가의 짙은 안개 숲의 자태 뿌옇다네
 沙平欲馳馬 드넓은 모래사장에 말 달리고 싶어져
 潮滿且維舟 조수 가득 차자 배를 대었지
 忽忽登臨感 훌쩍 올라가 감상하니
 滄波萬古流 푸른 물결 만고(萬古) 동안 흐르는구나⁴⁶

남유용은 수련(首聯)에서 자신의 짧은 관직 생활에 바쁜 일도 없기에
 누각에 올라 술을 마실 뿐이라고 하였다. 남유용은 1740년에 간관지책(諫官
 之責)에 대한 상소를 올려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후 복직이 되었으나 1744년
 에 이조 좌랑, 이조 정랑에서 체차되는 등 관직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렇기에 남유용은 자신의 삶을 첫 구에 ‘관직 생활이 짧다(薄宦)’고 묘사하
 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았다.
 첫 구의 ‘서기(棲遲)’는 『시경』의 〈횡문(衡門)〉에서 “횡문의 아래여 노닐고
 쉴 수 있도다(衡門之下, 可以棲遲)”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한 시어로, 은거의
 삶을 의미한다. 남유용은 이 시에서 자신의 현재 처지를 느긋한 은자의
 삶으로 여겼다.

시의 후반부는 강 건너 밤섬 모래사장의 한적하면서도 광활한 풍경을
 그려내었다. 물이 차자 다시 배를 대며 용산강의 풍경을 즐기고 있다.
 조수가 차오르는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으며, 누대에 오른 남유용은
 멈춘 채 서서 풍광만 바라만 보고 있다. 쉬지 않고 물이 흐르는 모습은
 자연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무한하게 흐르는 강물과는 달리 인간은
 유한하다. 현재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고 누대에 올라선 남유용과 마찬가지로

46 남유용, 『雷淵集』 권5(한국문집총간본 217), 〈汎舟至挹清樓, 戶部金貞外士彬[文行], 載
 酒相邀. 醉次岳陽樓韻, 李宜叔·李平一·金士舒[陽澤] 俱和〉.

이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사의 대조는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경치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의 감정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이 시의 특징이다.

〈배를 타고 읍청루에 가서 덕재, 평일, 사서와 함께 지어 김문행에게 보여주다〉

鼓柁春潮濶 봄 조수 불어난 물 노 저으며
 花邊問畫樓 꽃 옆 그림 같은 누각에 안부 묻네
 鷗心閒自在 갈매기의 뜻 한가로이 절로 남아있고
 柳色遠如浮 버들빛 멀리까지 떠 있는 듯 하구나
 酒氣薰琴席 훈금 권 자리에 술기운 훈훈하고
 詩篇滿釣舟 낚시 배엔 시편이 가득하네
 芳辰留客意 꽃 편 계절이라 객도 머물게 할 뜻 생겨
 薄宦爾風流 보잘 것 없는 벼슬에도 풍류 타는구나⁴⁷

이천보는 선유(船遊)를 즐기는 모습으로 시상을 시작하였다. 봄 조수 물에 물결이 밀려들어 오는 길을 노를 저어 올라 읍청루에 도착하였다. 멀리 갈매기는 한가로운 강에 여전히 남아 있고 버들도 푸른빛을 멀리서도 뽐낸다. ‘훈금(薰琴)’은 순임금의 〈남훈가(南薰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 강의 풍경을 그려냈다. 봄바람에 술기운이 무르익고 낚시배에는 잡은 물고기 대신 시편만이 가득하다. 읍청루에 올라 좋은 시상이 많이 떠올라 서로 수창한 시가 많음을 과시하면서, 문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풍류를 보여준다.

47 이천보, 『晉菴集』 권2(한국문집총간본 218), 〈舟往攄清樓, 與德哉·平一·金弟士舒(陽澤)同賦, 示金地部士彬(文行)〉.

이천보는 읍청루의 풍경이 아름답고, 또 마침 자신이 읍청루에 오를 때가 좋은 계절이라 풍류를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좋은 시절을 맞이한 이의 즐거움을 엿볼 수 있다. 시에서는 '보잘 것 없는 벼슬(薄宦)'이라 하였지만 이천보는 1739년 을과에 합격한 이후로 꾸준히 관직생활을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검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처럼 네 문인들은 읍청루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술을 기울이는 자신들의 모습과 풍류를 즐기려는 태도를 그려냈다. 개인적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조금씩 시적 흐름이 차이를 보이거나 네 문인들의 시는 대체로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어려운 시어나 복잡한 수사가 없다. 동시에 자신의 느낀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네 문인은 공통적으로 천기(天機)를 중시하였는데⁴⁸, 읍청루에서 지은 시들은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조조 사가는 모두 관직 생활을 오래한 관각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회에서 지은 시들은 대체로 산수(山水)를 소재로 지었으며, 도학적 풍모보다는 서정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하다시피 황경원의 글에선 읍청루에서 오원과 이천보가 세상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해당 작품에서는 도학자적인 자세나 우국(憂國)의 뜻을 볼 수 없는데, 천기(天機)를 중시했던 이들의 시 창작 의식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종암문회'라 일컫게 된 계기인 『종암수창집』의 서문에서 남유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앞으로 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천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모두 우리 시이다. 유상한 산천과 초목에 있고 바람과 구름, 안개, 달처럼 변하는 것에 있으니 그대는 그 오는 것만을 구하면

48 임유경(1991), 앞의 논문, 27-47쪽.

된다.’⁴⁹

‘천하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이 시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연과 만물 자체를 시적 소재로 삼으려고 함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천기(天機)의 기본자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가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오원이 산과 물과 벗과 술이 있으면 시를 짓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적하면서 탈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읍청루의 풍광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시를 쓸 만한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이들의 천기론(天機論)을 펼칠 만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조조 사가에게 읍청루는 교유의 공간이면서 자신들의 문학관을 발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2. 환월정(喚月亭) 일대와 근기(近畿) 남인(南人) 시회(詩會)

18세기 문인들 사이에서 문예 취미로 성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림 조성이다. 원림을 조성하지 못한 문인이라 할지라도 원림을 찾아다니며 도성 내에서 탈속적인 흥취를 즐겼다. 채제공(蔡濟恭)을 비롯한 근기 남인 문인들도 필운대(弼雲臺) 아래인 서원(西園), 용산의 이씨(李氏) 원림과 사직동의 조씨(曹氏) 원림 등 다양한 원림들을 찾아다니며 시를 짓고 교류하였다.⁵⁰ 또한 1785년에는 용산강과 이어진 만초천(蔓草川)에 목만중(睦萬中)을

49 남유용, 『雷淵集』 권13(한국문집총간본 217), 〈鐘巖詩卷跋〉. “有求之者, 將應之曰盈天下者, 皆吾詩也. 其常在山川草木, 其變在風雲烟月, 子其往求之.”

50 예컨대, 채제공의 〈曹園記〉, 〈遊吳園記〉, 〈重遊曹園記〉(『樊巖集』(한국문집총간본 236)) 등과 목만중의 시 〈曹氏園春賞〉(『餘窩集』(장서각본) 참조) 등이 있다. 이들은 용산 이씨 원림 외에도 필운대 아래에 있는 이씨 원림에도 시회를 열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용산(龍山)’이나 ‘강(江)’과 같은 용산강 일대를 특정할 수 있는 시어가 확인된 작품은 용산 이씨 원림으로 보았다. 그리고 필운대나 서원(西園)과 관련된 시어가 나오는 작품들은 필운대 근처의 이씨 원림으로 구분하였다.

중심으로 시회를 열었는데, 그 명칭을 만사(蔓社)라고 하였다.⁵¹

채제공은 1780년대에 마포에서 거주하였고, 그 근처에는 권사언의 정자였던 만어정(晩漁亭)이 있었다. 남인 문인들은 만어정에서 종종 모임을 가졌기에 서강의 마포, 용산강 일대를 자주 유람하였다. 만어정에서 배를 타고 용산까지 도착하면 찾을 수 있는 용산 이씨 원림 일대는 근기 남인 문인들이 자주 찾는 유상지(遊賞地) 중 하나였다. 1782년 늦봄에 채제공은 자신의 조카인 채우공(蔡友恭)과 아들인 채홍원(蔡弘遠)과 함께 용산 이씨 정원을 찾았다.

〈채우공(蔡友恭)⁵², 채홍원⁵³과 용산(龍山) 이씨(李氏) 화원(花園)에 올라가 시를 지은 것이 있어 차운하여 보여준다〉

卍識春遊興 누워서도 봄 유람의 흥취를 안다만
爾歸侵日斜 그댄 저녁까지 놀다 오네
支離麻浦客 마포의 객 지루해 했는데
深淺李園花 이씨 원림의 꽃 질고 열다네
手折抄香雪 손수 향기로운 눈 같은 꽃 가려 꺾어
喉乾嚙絳霞 말려두니 저녁 놀 삼킨 듯 하네
尋源如不誤 도원(桃源) 찾기 그르치지 않은 적 없으니
吾欲急移家 나는 성급히 집 옮기고 싶어졌다네⁵⁴

51 1785년에 지어진 〈蔓川開社日李公會誇燕都之盛詩以嘲之〉와 〈七月八日與岐川五沙集于蔓社〉를 예로 들 수 있다(『餘窩集』 권7, 「白社錄」 5(장서각본) 참조).

52 채우공(蔡友恭): 1749년생이다. 채우공은 자가 백우(伯于)이고, 호가 수계(秀溪)이다.

53 채홍원(蔡弘遠, 1762-1832): 채홍원은 자가 이숙(邇叔)이고, 호는 어사산인(於斯散人)이다. 본래 채명윤(蔡明胤)의 증손인데 채제공이 적실(嫡室)에 아들이 없어 그를 계자로 들여세웠다.

54 채제공, 『樊巖集』 권16(한국문집총간본 235), 〈友恭·弘遠遊龍山李氏花園有所賦, 次韻以示〉.

채제공은 누워서도 충분히 유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지만 애써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유람을 즐긴다고 하였다. 이 시를 지을 당시 채제공은 마포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3구의 마포의 객은 채제공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지루했던 일상생활과는 달리 이씨 원림에 찾아가자 이리저리 핀 꽃들이 곳곳마다 그 색과 형태가 다양하여 지루함도 잊게 하였다. 꽃을 꺾어 말려두는 등 화원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도 보인다.

마지막 구에서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다고 말할 만큼 이씨 원림의 풍경이 채제공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동시에 자신은 무릉도원(武陵桃源) 같은 은일 공간을 찾는 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자부심도 내비친다. 이는 다른 문인들과 유상지(遊賞地)를 찾아다니면서 쌓아둔 경험과 안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당시 용산 이씨 서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채제공은 양천구에 있는 은행정(銀杏亭)에 들렸으며⁵⁵, 이씨 서원을 유람한 뒤에는 목만중도 합류하였다. 이 때 쓴 시에 “냉면 먹기 이른 때지만 왜나무 잎 찾아, 보잘 것 없는 술 가난한 집이라 죽통 잔만 들어올리네”⁵⁶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소박하지만 흥을 돋울 만한 술자리를 베풀어 즐거운 한 때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들은 마포의 만어정에 도착하였고, 채제공은 차운시를 남겼다.⁵⁷

채제공은 교유 문인들과 이씨 원림을 찾은 뒤에 그 감상을 기문으로 남겼다. 기문을 토대로 이씨(李氏) 원림의 대략적인 위치와 풍광 등을 유추할 수 있다.

55 채제공, 『樊巖集』 권16(한국문집총간본 235), 〈霽月明甚, 率友恭·弘遠暨成君數人, 步出江干, 放舟至銀杏亭下〉.

56 채제공, 『樊巖集』 권16(한국문집총간본 235), 〈餘窩至, 見次軸中懷餘窩韻, 却復次〉. “冷淘節早尋槐葉, 薄酒家貧捧竹杯”

57 채제공, 『樊巖集』 권16(한국문집총간본 235), 〈晚漁亭, 次主人板上韻〉.

지난 해 내가 삼포에 거처하였을 때, 용산 이씨의 원림이 꽃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다. (...) 올 봄 유선(幼選) 목만중과 경삼(景參) 오대익(吳大益) 사술(士述) 채홍리(蔡弘履)와 날을 정해 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만옹(晩漁) 권사언(權師彦)이 그것을 들은 편지를 보내 함께 하길 요청하였다. 이에 세 사람을 좇아 먼저 만어정(晩漁亭)에 갔다. (...) 오후가 지날 때에 말을 타고 이씨 원림에 방문하였다. 원림은 호당(湖堂)의 옛터에 있었다. 호당(湖堂)이 두모포에서 옮긴 후 그 터의 주인이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씨(李氏)가 소유했다고 한다. 원림에는 온갖 꽃이 있는데 도화가 가장 화려했다. 울긋불긋한 것들과 분홍빛인 것도 있었다. 비스듬히 좌우로 늘어진 것, 단정히 정면을 마주한 것들이 서로 고움을 다투며 예쁘게 흐드러졌으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큰 강이 꽃 사이로 흘러가 때로 물결치니 그 빛이 무척 푸르렀고 은은하여 마치 붉은 비단을 입은 자가 푸른 비단과 검은 비단을 걸친 것 같아 깨닫지 못한 채 기뻐 웃음이 났다.⁵⁸

목만중, 오대익, 채홍리는 채제공과 함께 18세기 근기 남인의 시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들이다. 이들과 유상(遊賞)을 약속하여 만어정과 함께 이씨 원림도 들린 것으로 보인다. 본래 원림이 호당(湖堂) 옛 터에 있다고 하였는데 호당은 용산 독서당을 지칭한다. 용산 독서당은 채제공이 언급하였듯이 동호(東湖)와 인접한 두모포에 있었는데, 후에 용산으로 옮겨졌으며, 유하정(流霞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채제공은 이씨 원림에 핀 꽃들을 감상하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58 채제공, 『樊巖集』 권35(한국문집총간본 236), 〈遊李園記〉. “往年, 余寓三浦, 聞龍山李氏園以花名. (...) 今年春, 約幼選·景參·士述將選日往遊. 晚翁權仲範聞之, 折簡要與同. 於是從三者, 先赴晩漁亭. (...) 日過午, 聯騎訪李氏園. 園湖堂舊基. 自湖堂移豆毛浦, 基屢闢主, 今爲李氏有云. 園有百花, 桃最盛. 有紅者, 有碧者, 有粉紅者有. 斜而列左右者, 有整而當人面者, 爭妍鬪姣, 娉婷葳蕤, 不知爲幾許本也. 大江從花隙, 有時翻動, 其色正碧, 隱隱若衣紅錦者褰以綠紗黛縠, 不覺欣然色笑.”

꽃들 사이로 큰 강이 흐른다고 한 것은 용산강을 말하는 듯하다. 화려한 꽃나무 사이로 강이 흘러가고 더욱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내고 있다. 화원에 핀 꽃들의 모습을 일일이 나열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에 “깨닫지 못한 채 웃음이 났다”고 할 정도로 채제공은 이씨 원림에 대해 크게 만족하였다.

다만 땅의 형세가 협소하고 넓지 못함이 아쉬우니 식물들이 온전한 아름다움을 펼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근처에 있는 자의 말에 따르면 전에는 복사꽃이 뺨뺨하였는데 오늘의 경관보다 뛰어났다고 하였다. 가까운 곳에 권공이 새로 정자를 세우더니 전부 배 한 척으로 가져가버려 문수(汶水)에서 나는 대나무를 계주(蘄州)로 옮겨 심은 풀이니 지금의 정원은 옛날의 정원과는 다르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세상의 도는 변하고 바뀝니다. 하물며 노상 주인이 없는 물건은 어떠하겠습니까? 저쪽이 번성하며 이쪽이 쇠퇴하고, 동쪽이 넉넉하면 서쪽이 기울어지는 법입니다. 비록 종정(鍾鼎)과 옥백(玉帛)같이 귀한 것이라도 본래 쥐고 놀기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부귀하면 편안히 부리고자 하여 그 정자를 본래 소유한 것이라 여기고 옮겨 심고는 사물을 억류하여 마치 오랜 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장차 누군가에게 속할 것을 모릅니다. 사람의 삶이 어찌 이토록 어두울 수 있습니까?”⁵⁹

59 채제공, 『樊巖集』 권35(한국문집총간본 236), 〈遊李園記〉. “但恨地勢狹少遼寬曠, 物之不能全美, 理也. 在傍者言前時桃簇簇如束, 不啻如今日之觀. 近有權貴新起亭, 全一船取去, 作汶篁蘆植, 今之園異故之園矣. 余聞而笑曰: “天地之道, 變而易而已. 況物之無常主者. 盛於彼則衰於此, 贏於東則踦於西. 雖鐘鼎玉帛, 本不足把翫. 而愚者爲富貴佚欲所使, 諱諱然以其亭爲固有, 從而移植, 物而留留之, 若將永業焉. 而不知其幾何而又將屬之於何人, 人之生也. 何若是芒也?””(번역은 심경호의 것을 참고하였다.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소명출판, 2003), 107쪽)

이씨 원림의 아름다운 풍경을 칭찬한 전반부와 달리 기문의 후반부에서는 원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원림의 크기가 다른 원림에 비해 크지는 않았던지 체제공은 땅이 협소함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이씨 원림이 이전보다 풍광이 못한 까닭을 듣게 된다. 근처에 정자를 만드는 이가 마구잡이로 이씨 원림의 꽃과 나무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체제공의 만족감은 비판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다. “문수(汶水)에서 나는 대나무를 계주(薊州)로 옮겨 심은 꼴”이라고 한 부분은 <악의전(樂毅傳)>의 “계구에 심은 나무는 문수(汶水)에서 나는 대나무를 심었다(薊邱之植, 植於汶篁)”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후대에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데, 여기서는 마구잡이로 식물의 서식처를 옮긴 행태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당시 원림을 경영하는 일이 유행이었으나 문인들은 화려함이나 인공미(人工美)를 살리기보다는 자연미를 추구하였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생태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하는 일은 자연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훼손된 풍경은 원림 경영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성시(城市)에서 느끼는 탈속적 풍류와 멀어지게 한다. 체제공의 말처럼 “온전한 아름다움(全美)”마저 훼손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공은 비단 정자나 원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물이든 그것의 소유가 본래 자신의 것이라는, 게다가 자신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체제공은 18세기 근기 남인의 주축이었고 정조에게 신임을 산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당파 싸움에 휘말려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관직에서 내려오기도 여러 번이었다. ‘중정(鍾鼎)’과 ‘옥백(玉帛)’ 같은 부귀영화도 한때일 뿐이지 평생토록 질 수 없음을 몸소 깨달은 이가 바로 체제공 자신이다. 게다가 자연 본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면서 억지로 소유하고자 함은 체제공의 입장에서 개탄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이처럼 체제공은 이씨 원림에서 탈속적인 정취를 느끼는 한편, 원림의 실상을 알게 되자 당대 현실을 솔직하게 비판하였다. 용산 이씨 원림 근처에는 환월정(喚月亭)이 있었다. 체제공과 근기 남인 문인들은 환월정에서도 시간을 보냈다. 만어정에 찾아가면서 서강과 용산강에 배를 띄워놓고 용산 이씨의 원림과 환월정을 함께 찾는 것이 당시 이들의 일반적인 유상(遊賞) 과정이었다. 용산 이씨 원림과 만어정을 찾았던 1782년에 체제공은 환월정에서 차운시를 남겼다.

〈환월정(喚月亭) 시에 차운하여 쓰다〉

亭樓如舫壓江濤	배 모양 누대가 강 깊은 곳에 있어
灑氣虛明日滿襟	맑은 기운 밝아오니 햇살 옷깃에 가득하네
座上逢迎惟宿鷺	앉아서 맞이하는 건 졸던 해오라기뿐
鏡中飛落是何岑	거울 속에 날 듯 거꾸로 비친 건 무슨 봉우린가?
雲歸城闕瞻依近	성궐(城闕)로 돌아가는 구름 가까이서 우러르고
松覆棋樽坐臥深	바둑판과 술자리에 드리운 솔그늘 누운 곳까지 깊도다
奇事主翁年八十	기이한 일이구나, 80세의 주인 노인
淸詩長和老龍吟	맑은 시 길게 화답하길 늙은 용의 소리 같네 ⁶⁰

첫 구를 통해 환월정이 배모양을 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월정에서 체제공은 한가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인적이 드문지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건 졸던 해오라기뿐이며, 강에 거꾸로 쏟아지듯 비춰지는 산이 있다. 체제공이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이씨 원림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환월정에는 소나무 그림자가 깊숙한 곳까지 드리워 청량한 흥취까지 느끼게 한다.

60 체제공, 『樊巖集』 권16(한국문집총간본 235), 〈次韻寄題喚月亭〉.

한편 환월정에서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면서도 도성으로 돌아가는 구름을 인식하며 현재 있는 곳이 도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임을 상기하였다.

환월정의 주인은 나이가 많았음은 시의 마지막 두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환월정은 조세선(趙世選)의 정자였다. 조세선은 1705년생이므로 시의 마지막에서 언급하였듯이 채제공이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거의 80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러나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였는지 청아한 시를 화답하면서 늙은 용의 울음소리처럼 큰소리를 내었다고 묘사하였다. 환월정의 풍경과 개성은 이처럼 그 주인의 비범함에서부터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채제공이 인상 깊게 볼 정도로 정정했던 조세선은 몇 년 후 세상을 떠나는 데, 1786년에 목만중이 그의 만시(挽詩)를 지어주었다.⁶¹ 목만중은 1790년에 무고로 면천(西川)에 유배 갔다가 해배된 뒤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 1790년대는 진산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남인 문단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을 보이던 시기였다. 그 때문인지 목만중이 해배 후 다시 서울에서 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시회 활동이 적었다. 목만중은 1794년에 환월정에서의 추억을 상기하며 차운시를 지었다.

〈조씨(趙氏) 환월정(喚月亭)에서 시권을 보며 보운(步韻)하여 감회를 쓰다〉

出郭西南江漢潯	성곽 서남 쪽을 나서서 한강 가에 와
層軒一坐敞煩襟	높은 누대 자리 잡으니 번뇌 사라지네
開門直入波頭月	문 열고 곧장 들어가니 물결 끝에 달이 떴고
渡水欲來簾額岑	물 건너고자 하니 발 끝에 산이 걸렸네

61 목만중, 『餘窩集』 권5(한국문집총간본 속 90), 〈輓趙都正〉. 시의 첫 구에 “용호(龍湖)의 물이 흘러 정자를 돌아 안아(龍湖流水抱亭廻)”라고 하였는데 이 정자가 환월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俛仰百年身已老	어영부영 백 년쯤 이미 늙은 몸
見聞三世契何深	삼세(三世)걸쳐 맺은 정분 얼마나 깊은가
翛然閱劫當階樹	유유자적 섬돌 나무는 오랜 세월 겪었어도
養得孫枝學鳳音	봉황 울음소리 배울 곁가지 잘 길렀네 ⁶²

환월정은 도심이라 할지라도 자연 속에 있는 듯 모든 근심을 씻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환월정의 공간은 이전과 변함없이 여전히 남아있던 듯하다. 정자에선 물결 위로 달이 떠올라 해진 후의 환월(喚月)이라는 정자의 이름과 어울리는 풍경을 자아냈다. 이 시의 운자(韻字)는 채제공의 <환월정(喚月亭) 시에 차운하여 쓰다>와 같으나 채제공이 차운한 본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시권(詩卷)을 보았다는 제목을 토대로, 환월정에서 문인들이 수창한 후 시권을 엮었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또한 “삼세(三世)나 걸친 인연이 깊다고 한 표현은 한때 환월정의 주인이었던 조세선 일가와와의 인연을 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전의 남인 문인들과 유람했던 추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환월정에서 쓴 시권을 열람하며 쓴 작품인 것을 주지하였을 때, 후자에 가깝다고 본다. 시의 표현처럼 “어영부영 이미 늙은” 목만중에겐 한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환월정에서의 추억과 인연이 중요했을 터다.

환월정에서 맺은 인연이 깊은 만큼 정자의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음은 환월정의 나무로도 알 수 있다.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겪었지만 그래도 곁가지를 길러내었다. 이때의 곁가지는 목만중의 후대 문인을 의미한다고 본다. 마지막 구의 “봉음(鳳音)”은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 나무가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란 피리의 재목이 되어 소리를 낸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란 시(詩)가 된다. 오래된 나무가 잘 길러낸 곁가지

62 목만중, 『餘窩集』 권6(한국문집총간본 속 90), <趙氏喚月亭閱詩卷, 步韻書感>.

가 그 뒤를 이어 좋은 소리 내는 법을 배운다는 구절에는 노쇠해진 목만중의 뒤를 이어 후대 문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지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이는 나아가 목만중이 이전의 자신들이 유람을 다니면서 시회를 열었던 것처럼 후대 문인들도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되었다. 곧 환월정은 목만중에게 오래 전 인연을 추억하게 하고 앞으로의 인연, 곧 후대 문인들의 시와 인연을 기대하게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목만중의 기대처럼 채제공과 목만중이 모임을 가진 이후에도 후배 문인들은 환월정을 찾았다. 정약용과 교유관계가 돈독했던 이학규는 읍청루에서 뱃놀이를 하며, 환월정까지 와 유람을 즐긴 뒤 이를 시로 남겼다.⁶³ 또한 이익의 제자로 알려진 19세기 문인 윤기(尹檣)도 채제공의 환월정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⁶⁴ 이로 보아 환월정은 근기 남인 문인들이 18세기 이후에도 꾸준히 찾던 유상지(遊賞地)였음을 알 수 있다.

근기 남인문인들은 용산강 일대를 유람하면서도 완전한 일탈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풍경이 선사하는 탈속적인 분위기를 읊으면서도 현실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연결시켜 풍경에 대한 감상을 드러냈다. 이는 강호(江湖)의 정신을 느끼고 싶어 하나 완전히 도성에서 멀어질 수 없는 사대부 문인들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⁶⁵ 물론 이러한 의식은 다른 사대부 문인들의 산수 유람시나 유람기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앞서 영조조 사가의 시가 서정성을 길게 띄고 있는 데 비해, 채제공의 기문이나 목만중의 시에서 세태 비판이나 후대 문인에 대한 기대감 등

63 이학규, 『洛下生集』 권1(한국문집총간본 290), 〈同韓時中[永益]·韓聖好[德生], 遊龍山 搨清樓, 舟行至喚月亭〉.

64 윤기, 『無名子集』 4책(한국문집총간본 256), 〈次喚月亭韻〉.

65 이에 대해 이종목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한강의 별서를 두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는 강호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함이거나, 권력 다툼에서 낙마하였을 때는 재기를 위해 몸을 움츠리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종목,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동호편』(경인문화사, 2016), 14쪽.

현실적인 태도를 강하게 표출했다는 점은 비교가 된다.

채제공은 다양한 시회를 결성하며 18세기 근기 남인 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존 연구에서는 그의 시회 결성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⁶⁶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처럼 근기 남인들이 시회를 통해 정치적 결속을 다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들은 그 의도와 달리 끊임없이 도성에서 가까운 곳의 산수를 찾아다니며 시회를 열었고, 한적과 탈속을 추구하는 시를 남겼다.

채제공은 1773년에 결성한 시회에서 창작한 시를 모아 「정원록(貞元錄)」으로 엮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정원록」에 수록된 시들에선 은거를 꿈꾸는 내용이나 시 짓기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풍류를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를 지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⁶⁷ 곧 이들의 시회는 풍류를 추구하였어도 현실 문제에서 분리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상지를 찾아다니며 한적을 추구하는 시를 창작한 것도 이러한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근기 남인 문단의 시회 목적이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결집이었다면, 이들의 시회 공간은 어려운 현실에서 잠시나마 풍류를 즐기고 여유를 찾고자 하는 뜻이 반영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근기 남인 문인들의 한강 일대에서 찾은 시회 공간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쉼터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식을 공유하

66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詩社 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한문학보』 26권(2012); 백승호, 『정조시대 정치적 글쓰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안대회, 「18세기 시사(詩社)의 현황과 전개 양상」, 『고전문학연구』 44권(2013); 이승재, 「채제공 「정원록」 연구」, 『한문학논집』 50(2018).

67 이승재는 시사의 구성원을 상세히 기록한 점, 면학을 강조하는 시를 지었다는 점, 백일장을 열어 과시를 도와주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승재(2018), 앞의 책.

고 결속을 다지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표면적으로나마 풍류를 지향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듯이 18세기 영조조 사가와 근기 남인 문인들은 용산강 일대를 유람하고 시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문학관을 공유하고 다듬을 수 있었다. 두 집단은 구체적인 장소와 유람 과정, 시적 정서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용산강 일대를 꾸준히 유람하였다. 이들이 유독 용산강 일대를 유람하고, 문학적 교류 공간으로 삼은 이유는 용산강의 지리적 특징과 연결시킬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용산강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거처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접근하기 용이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람하는 과정에서 여정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는 근기 남인 집단이 뱃놀이를 통해 서강 일대를 유람하며 이씨 원림과 환월정을 찾아 간 것과 관련이 있다. 그만큼 용산강은 서울과 한강에서도 중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용산강에 군자감 강감과 만리창이 있었다는 점, 읍청루가 훈련도감 별영창(別營倉) 구내에 있다는 점은 삼강(三江) 중 다른 곳들에 비해 관각문인들의 접근성 또한 더욱 높였다. 이는 영조조 사가가 용산강 일대를 유람한 계기가 남유용이 군자감에 재직하였을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구체적인 위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환월정 또한 군자감과 읍청루와 가까이 있어 뱃놀이를 통해 함께 유상할 수 있었다. 곧 서울과의 거리감을 포기할 수 없었던 18세기 문인들에게 삼강(三江)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용산강은 그만큼 매력적인 장소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IV. 맺음말

본고는 용산강(龍山江) 일대에 조성된 별서와 원림 위주의 유상지(遊賞地)를 소개하고, 18세기 문인들의 시회 공간으로 존재했던 용산강의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별서 및 원림 경영의 유행은 18세기 특징 중 하나이다. 한강 유역의 별서를 조성하는 일도 조선 후기에 늘어났다. 조선 후기 문인들은 한강 주변 별서에서 은거를 하거나, 유람을 하였다. 은거 중이나 유람을 하면서 다른 문인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시회를 열어 교류하였다. 곧 별서와 원림 같은 공간은 교류 공간으로, 시회와 긴밀한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에 용산강 일대 별서 및 원림 등의 승경지(勝景地)에서 열린 시회에 주목하였다.

II장에서는 용산강의 지리적 특징과 그 일대 별서 위주의 승경지(勝景地)를 소개하였다. 용산강은 용산 및 신용산 일대와 동작구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을 지칭한다. 현재 반포대교 서쪽부터 마포대교 일부까지를 이르고 할 수 있다. 용호(龍湖), 남호(南湖)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운선(漕運船)의 정박지였던 용산강은 교통의 요지였다. 동시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용산강 일대에는 별서와 원림이 많이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공간으로 읍청루(挹淸樓), 시안정(是岸亭), 이씨(李氏) 원림(園林), 환월정(喚月亭), 심원정(心遠亭), 수명루(水明樓)를 손꼽을 수 있다. 용산강 일대의 승경지를 찾은 문인들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성시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였다.

III장에서는 용산강의 별서들 중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 문인들이 자주 찾았던 읍청루(挹淸樓)와 채제공(蔡濟恭)을 중심으로 시회를 열었던 근기남인 문인들의 유상지(遊賞地)였던 용산 이씨(李氏) 원림(園林)과 환월정(喚月

亭) 일대를 고찰하였다.

영조조 사가 문인들은 남유용이 1738년에 군자감에서 재직하였을 때 찾아와 모임을 갖고, 읍청루에서도 시회를 열었다. 이후에도 참여 인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더라도 꾸준히 읍청루에 올라 모임을 갖고 시를 지었다. 네 문인들은 개인적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읍청루에서 창작된 시들은 대체로 회화성이 두드러졌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시를 전개하면서 어려운 시어나 복잡한 수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영조조 사가는 공통적으로 천기(天機)를 중시하며, 공력을 들이지 않고 시를 쓰는 것을 추구하였는데, 읍청루에서 창작한 시도 이러한 문예의식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네 문인에게 읍청루는 교유의 공간이면서 자신들의 문예미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체제공과 목만중을 중심으로 모인 근기 남인 문인들은 도성 내 다양한 원림들을 찾아다니며 시를 짓고 교류하였다. 특히 마포의 만어정(晩漁亭)에서 주로 모임을 가졌으며, 그 일대를 자주 유람하였다. 용산강의 용산이씨 원림과 환월정도 그 중 한 곳이다. 체제공과 목만중이 각각 시문을 남겨 이씨 원림과 환월정의 분위기와 이들의 감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작품에서 근기 남인 문인들은 탈속적 분위기를 읊으면서도 현실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강호(江湖)의 정신을 느끼고 싶어하나 완전히 도성에서 멀어질 수 없는 사대부 문인들의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근기 남인 문인들의 시회가 정치적 결속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점을 참고하면, 이들의 시회 목적이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결집이었다면, 이들의 시회 공간은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풍류를 즐기고 여유를 찾거나 하는 뜻이 반영된 곳이라 볼 수 있다. 곧 이들의 시회 공간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쉼터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식을 공유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유람의 과정, 시적 정서 등은 차이를 보이지만 두 집단은 꾸준히 용산강 일대를 찾아 모임을 갖고 문학적 교류를 하였다. 이들이 용산강을 꾸준히 찾았던 이유는 용산강은 수로와 육로를 모두 포괄하는 교통의 요지였기에 접근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군자감이나 읍청루 별영 등에서 관각 문인들이 재직 중에도 복잡한 여정 계획 없이 자연의 흥취를 즐길 수 있었다. 용산강이 삼강(三江) 중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 당대 문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본고는 18세기 문인들의 시회와 용산강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연결시키면서 문화 공유 공간의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18세기 문인들의 교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용산강 일대의 승경지는 풍류와 유상(遊賞)의 공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문학관을 드러내고 이를 확인하는 공간이었고,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갖고 자신들의 시의식을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국조보감』.

『조선왕조실록』.

김진규, 『竹泉集』. 한국문집총간본 174.

남공철, 『金陵集』. 한국문집총간본 272.

남용익, 『壺谷集』. 한국문집총간본 131.

남유용, 『雷淵集』. 한국문집총간본 217.

목만중, 『餘窩集』. 한국문집총간본 속90.

_____, 『餘窩集』. 장서각본.

박영원, 『梧墅集』. 한국문집총간본 302.

송상기, 『玉吾齋集』. 한국문집총간본 171.

심유, 『梧灘集』. 한국문집총간본 속34.

오원, 『月谷集』. 한국문집총간본 218.

윤기,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본 256

이민구, 『東州集』. 한국문집총간본 94.

이승인, 『陶隱集』. 한국문집총간본 6.

이지걸, 『琴湖遺稿』. 한국문집총간본 속40.

이천보, 『晉菴集』. 한국문집총간본 218.

이학규,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본 290.

정약용, 『茶山詩文集』. 민족문화추진회.

조두순, 『心庵遺稿』. 한국문집총간본 307.

조태억, 『謙齋集』. 한국문집총간본 189.

채제공, 『樊巖集』. 한국문집총간본 235-236.

한장석, 『眉山集』. 한국문집총간본 322.

황경원, 『江漢集』. 한국문집총간본 224.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2. 단행본

- 서울특별시, 『서울의 누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3.
- 고동환·이현군·유승희·김태우·이종묵·윤진영, 『경강-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7.
- 안세현, 『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동호·남호·서호』. 경인문화사, 2016.

3. 논문

-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2006, 1-48쪽.
- 김묘정, 「소북(小北) 문인집단의 지식 공간 양상과 그 의미: 별서(別墅) 시회(詩會)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6권, 2019, 77-112쪽.
- 김세호, 「權常愼의 玄湖別墅와 漢江에서의 文化活動」. 『한국한문학연구』 69권, 2018, 115-144쪽.
-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詩社 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한문학보』 26권, 2012, 101-127쪽.
- _____, 『정조시대 정치적 글쓰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31권, 1998, 99-254쪽.
- _____, 「조선후기 서울의 遊賞空間과 詩文學」. 『韓國漢詩研究』 8권, 2000, 65-104쪽.
- 안대회, 「18세기 시사(詩社)의 현황과 전개 양상」. 『고전문학연구』 44권, 2013, 421-450쪽.
- 이승재, 「체제공 「貞元錄」 연구」. 『한문학논집』 50권, 2018, 181-204쪽.
- 임유경, 『英祖朝 四家の 文學論 연구: 李天輔·吳瑗·南有容·黃景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국문초록

본고는 용산과 노량진 일대에 흐르는 한강을 뜻하는 용산강 일대에 조성된 유상지(遊賞地)를 소개하고, 18세기 문인들의 교유 공간으로써 지닌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18세기 노론을 대표하는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가 자주 찾았던 읍청루(攄淸樓)와 채제공(蔡濟恭)과 근기 남인들이 유상(遊賞)했던 용산 이씨(李氏) 원림(園林)과 환월정(喚月亭)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는 여러 차례 용산강 일대 및 읍청루를 유람하며 시를 썼다. 이들은 시에 있어서 천기(天機)를 중시하였으며, 시를 쓸 때 도에 쓴 흔적 없이 자연스럽게 창작하고자 했다. 읍청루의 풍광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작시(作詩)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의 시론과 부합하는 시를 창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읍청루는 영조조(英祖朝) 사가(四家)에게 교유의 공간이면서 문예미(文藝美)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채제공과 근기 남인들은 도성에서 가까운 유상지를 찾아다니며 시를 짓고 교유하였다. 그 중 용산 이씨 원림과 환월정에 자주 찾았다. 이들은 교유 공간에서 탈속적 분위기를 즐기기는 하였지만 일탈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회 공간을 풍류를 즐기는 곳이자 자신들만의 문화 및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이처럼 18세기 문인들의 시회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용산강 일대의 장소들은 그들의 문예 취향을 확장시키고 소통했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20. 6. 23.

심사일 2020. 7. 24.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용산강(Yongsan-river), 용호(Yongho), 남호(Namho), 읍청루(Eopcheonglu-pavilion), 영조조 사가(Saga during the period of King Yongjo), 이씨 원림(Lee Family's Wonrim), 환월정(Hwanwoljeong-pavilion), 근기 남인(Geungi Southerners), 유상지(picnic venues)

Abstracts

The Sightseeing Place (遊賞地) and Poetry Club (詩會) around Yongsan River (龍山江) in the 18th Century

Lee Sae-rom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sightseeing place (遊賞地) built around the Yongsan river, and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i as a social association space in the 18th century. The target places include Eupcheongru (挹清樓) Saga (四家; 4 masters) frequently visi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Yongjo (英祖朝) who represented Noron in the 18th century, and Yongsan Lee's family (李氏) Wonrim (園林) and Hwanwoljeong (喚月亭) which Chae Je-gong (蔡濟恭) and Geunki Namin (the Southerners close to the capital) were sightseeing in.

Yongsan river refers to Han river flowing in Yongsan and Noryangjin areas. There were many sightseeing places (遊賞地) in the Yongsan river area, and the literati, who visited there, relieved the frustration of living in a walled city by enjoying the refined pursuits in places not far from the capital city.

Saga (四家) during the period of King Yongjo (英祖朝) wrote poems while traveling around Yongsan river and Eupcheongru several times. They valued the secrets of nature (天機) in poems, and even when writing poems, they tried to create them naturally without any traces of effort. Scenic beauties at Eupcheongru provided them with a natural space of writing poems (作詩), allowing them to create poems that match their poetics. Eupcheongru was a space of social association for Saga (四家) during the period of King Yongjo (英祖朝), and a space where beautiful literary art (文藝美) could be emitted. Chae Je-gong and Geunki Namin (the Southerners close to the capital) composed poems and made social associations while looking for sightseeing places close to the capital city. Among them, they often visited Yongsan Lee's family Wonrim and Hwanwoljeong. Although they enjoyed a separate atmosphere in the social association space, it was characterized that they did not show an attitude of deviation. The poetry club space was used as a place to enjoy the refined pursuits and as a space to share their own culture and knowledge, strengthening the bond. As such, the places around Yongsan river, which were actively utilized as the poetry club space of the literati in the 18th century, can be said to be spaces where their taste for literature was expanded and communicated.